

사설

설인증군 치사사건을 애도하며
『살인비극』을 조장했던 근원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15일(일) 연세대학에서 일어난 「동양공전생 설인증(20·화공2)」 흐락 추궁증 사례와 사건은 바로 몇개월 전의 동의대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기자인 이선우씨(20·경계2)는 연세대학생 6명과, 21일 자리를 찾은 고려대생 3명은 모두 설인증사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학의 동의대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각 신문과 제도정치권은 사실과 논평 등으로 「죽우살인」、「고문살인」、「죽여라」 등으로 되어버린 학생운동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프락처 전위부위를 떠나 폭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으로 사건 초기에 이러한 미국의 제발 방지 위해,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꼽음으로써 학생운동을 확장하고 있다.

프락처는 이용한 학원내 정보공작과 비도덕성과 그 엉덩 난 해악은 한 명의 프락처가 서울대 「구국학생연盟」 중심으로 파트너를 결집 조직을 확대시키고자 했던 「서울대 프락처 사건」에서 단초로 드러났다. 친미형 속성경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바로 어제까지 동료였던 친구들을 팔아넘기는 반인륜적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러한 프락처 공작이 학생운동을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지난해 기본법을 서울대 학생회(「독일인과 프락처사건」)와 최근 국민대생 김정환원장의 「생애장관 박을 달렸다는」 암시선언 등에서 알 수 있다. 그 이후 일부 학생들은 대학의 수사기관에서 한자 프락처를 보이는 가짜 대학증명에 대한 「경계설」로 거제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방인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갈 수 밖에 없는 비극, 대학인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인 불신증과 혼란한 것은 스러져가는 죽을지의 마지막 면밀을 보고 있는 반인주의 정권 그 자체이며, 이러한 슬픔은 없이 위한 유일한 방법 역시 비도덕적, 반인륜적 공작정치를 수행하는 구조적 악의 근원을 뿐이라는 일일것이다. 그것만이 이미 미군과 함께 되어버린 고 선인증군과, 동의대 사건 순경찰관들의 한껏 헛슬픔을 달랠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양의 학제적 차별되는 가공할 공권력에 의한 폭력, 사로서 사람의 건강성도를 폐를 발전시키는 한 가족을 위하는 한 학제적 차별화된 사회는 「이러한 폭소들로 끝난다.」

화할 수 있는 풀본인 장기(靈器)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허수하며 배설한다.

그렇지 못한 죄악의 물질을 배설한다.

큰 수술을 하고난 후, 망키를 나오는 것을 그 사람의 몸에 신경내과 사기·원활한 진료되기를 알아보기 위한 위험일 것이다.

▲하나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과 같은 유기적 구성을 체하고 함께 풀본인 「경계」를 보유하는 원활한 신경내사가 이루어지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를 볼때 활동의 환경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몸이 목욕과 양치질로 치소가 되지 못하고 소화기능을 저해하는 도소 유리를 없다면, 색이가는 사회역시 피상적인 (毒素)들이 너무도 많이 산개해 이를 쉬게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써 변혁수를 일으킨 자명 느끼게 된다. 「수조원에 달하는 권리형 부정한 사회, 친교육을 위해 도민 신생님들에 대한 정안적 탄압, 수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침해하는 것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영)

면 미군과 하자는 사람들은 체제수호의 명분이

‘감정’ 차원넘어 ‘운동’으로 성장한 대미관

「진짜없는 각별한 예우」 속에 지난 10월부터 4월5일간 공식행사를 미국에 방문한 노태우는 밖의 반미분담금액과 개별별개방대에 약속하는 돌아온 방송은, 이번 방송은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와 수입개방대에 약속하는 돌아온 방송은, 이번 방송은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작하고는 3야당의 공조체제부본부, 미군의 대한(對韓)수입 개방요구 확대라는 점만 알고 였던 것이다. 미중양성정부(CIA)는

수행된 30개대학 2만여명의 국공민군과 청와대에 30여년을 자랑하는 외교성과 성과를 제

